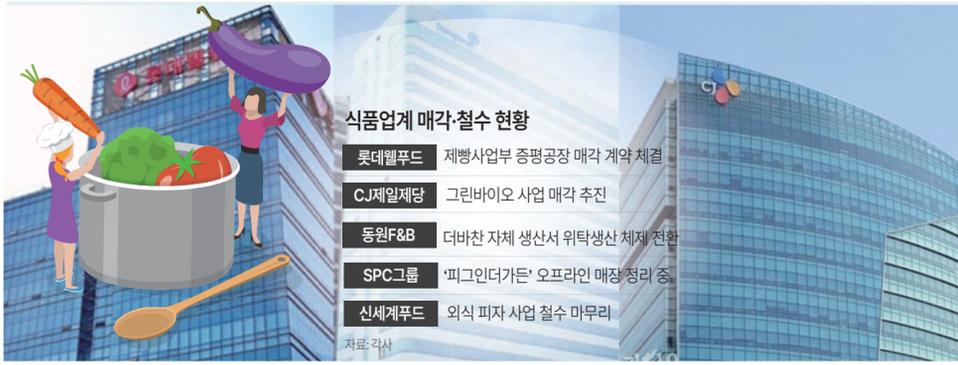


“잘나가는 사업에 올인”… 군살빼기 나선 식품업계

롯데웰푸드 제빵 공장 매각·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정리 동원 '더반찬' 생산 외주·삼립 '피그인더가든' 리테일 집중 신세계푸드 부진한 사업 정리·농심 '비건 외식 매장' 철수

식품업계가 연초부터 사업 효율화에 나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함으로써 마련한 자금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모양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신라명과와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위치한 제빵사업부 증평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증평공장 매각은 자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웰푸드는 2022년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합병해 출범했다. 롯데웰푸드는 합병 후 제빵·빙과 등 일부 중복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산 설비 효율화와 생산 품목 조정 등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증평공장은 작년 6월부터 유휴 상태에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글로벌 사업 확장에 활용할 예정이

다. 실제 롯데웰푸드는 인도 통합법인 설립 때 배로 라인 설비 투자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2200억 원을 투입해 천안 빙과 공장을 증축 중이다. 2026년 증설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 빙과 공장이 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2023년 빙과 영업장과 물류센터를 통합하고 메가 브랜드 강화를 위해 비효율 품목을 축소했다. CJ제일제당은 작년 11월부터 라인신 등 사료용 아미노산 품목 점유율 세계 1위인 그린바이오 사업 정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자본 등 성장 한계로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의 그린바이오 사업부 매각금액을 5조~6조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원F&B도 일부 생산 시설은 정리하고 집중 육성이 필요한 품목 생산 시설은 늘리고 있다. 동원F&B는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 등 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원F&B는 더반찬을 자체 생산에서 외부 위탁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회사는 제품 기획·판매·품질 관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반찬 제품은 반찬류를 전문으로 하는 오성푸드·슈퍼키친 등이

외주 생산을 맡고 있다. 동원F&B는 온라인 판매 중심인 더반찬 사업을 오프라인 유통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원F&B는 주력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원F&B는 작년 말 유음료제품과 냉식제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신규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16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피그인더가든’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보다 리테일 사업 측면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커머스나 마트·편의점 등의 채널에서 신선 편의 식품으로 정착을 성공시키며 완제품 카테고리 확대 운영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푸드는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사업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던 ‘노브랜드 피자’ 정보공개서를 취소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한 외식 피자 사업 철수 과정의 마무리 수순이다. 또 올해 10월에는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 프랜차이즈 사업을 종료한다. 2015년부터 한국 사업권을 획득해 운영한 스무디킹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장기적으로 대안식품을 포함한 푸드테크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비건 레스토랑 사업에서 철수했다. 농심은 2022년 5월 잡실 롯데월드몰에 비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포리스트키친’을 열고, 자체 보유한 대체육 제조기술을 활용해 파인다이닝 코스요리 등을 선보여 왔다. 농심은 비건 외식 사업을 철수했지만 2017년 선보인 식물성 식품 브랜드 ‘베지가든’을 통해 비건 시장 공략을 이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서울, 도심 획일적 높이 규제 탈피 해법 모색

창의적 도시관리 지침 마련 추진 내달 문화유산 주변 용역 착수

서울시가 도심 문화유산 주변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탈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제로 도심 내 개발이 제한되고 슬럼화가 우려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문화유산 보호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해 보다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련 기술용역 발주

에 착수해 종묘·덕수궁·경희궁·탑골공원·운현궁·송래문 등 주요 문화유산과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망축 확보 방안과 건축 가능 범위 설정, 도시건축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일부를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심부 문화유산 지역은 1981년부터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양각(올려다본 각도) 이내에서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과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탑골공원 일대처럼 재개발이 막혀 노후화된 지역이 늘어나면서 문화유산 주변이 오히려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도시 환경 변화와 건축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입지와 형태·조성 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다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니라 조망 보호와 개발 가

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문화유산과 현대적 도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심의 미래지향적 풍경을 구상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한상 기자 hsrin@skyedaily.com

대우건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엄지척’

CDP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대우건설이 10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경영 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을 지속가능경영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사내 ESG 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분석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특히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해 탄소 저감 기술을 실

현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친환경·저탄소 콘크리트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 구조물에서 ‘저탄소 콘크리트 활용 방법론’ 인증을 추진해 이를 통해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CDP 평가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서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이 높은 평가 기준”이라며 “이번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한상 기자 hsrin@skyedaily.com



삼양식품 ‘맵’ 론칭… 日 국물라면 시장 공략

삼양식품이 일본 시장에 글로벌 브랜드 ‘맵(MEP)’을 론칭하며 국물라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1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맷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슈퍼마켓트레이드쇼(SuperMarket Trade Show)에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력 브랜드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비롯하여 불닭 스페셜·불닭 소스와 함께 신규 국물라면 브랜드 맵(MEP), 리뉴얼된 파스타 브랜드 탱크의 신제품을 새롭게 소개한다. 맵(MEP)은 삼양식품이 2023년 8월 국내에서 선보인 국물라면 브랜드 ‘맵’의 글로벌 브랜드다. 맵은 라면을 찾는 다양한 상황에 주목해 맵을 5가지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 애국 한인 동포들이 호소합니다! (동포 호소 3차)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반국가 세력 실체가 드러난 지금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목숨 걸고 알린 **‘부정 선거’** 국민이 나서 검증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정면 돌파로 반국가 세력과 맞장 뜬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알린 대통령을 국회·법관·사법기관은 불법 내란 몰아하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자유와 법치를 외친 2030 청년들을 경찰은 억압하고 사법부는 폭압과 무자비로 구속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만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국정원 총장원의 유언비어, 공수처의 불법 만행, 언론사의 편향 보도, 국힘당의 배신, 문형배 법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정공갈 협박이 합법인 **법관 지배 나라** 되었습니다.

- **법관 문형배는 이재명과 절친이며 반미주의, 6·25복침 신봉 의심자입니다.**
- **법관 이미선은 친동생 이상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 **법관 정계선은 남편 황필규가 민주당 탄핵소추단 법무법인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명하십시오!

국가 기관에 의해 법이 사망한 나라,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국민이 일어나 살려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남은 ‘유일한 법’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는 멀리 있어 갈 수 없어 눈물로 이렇게나마 국민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소식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며 갈 수 없어 신문으로라도 [인 시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모임 대표 **정동신(목사) 외(가나다순) New York** 김명덕(Ph.D), 노기승(목사), 박동영, 백도현, 신홍규, 이창무, 이창일, **홍종학 New Jersey** 강영석, 김명식(목사), 김미경, 김승이, 김영길, 김영이, 김진아, 남영순, 남봉우(목사), 서정학(목사), 박종완, 이규연(목사), 이병준(목사), 이주희, 이호수, 오대석(목사), 육민호(목사), 윤자선, 윤한진, 전응국, 전재현, 정일권, 정철수(목사), 최윤정 **Atlanta** 권기호, 김상오, 심우철, 오대기, 유명화(목사), 유종현(Ph.D), 이재승, 장병국, 주중광, 하재권, **홍성구 Houston** 오영국, 유승환, 유승희, 이경복, 이명순, 정수지, 조명희 Ohio 김경애, 김라나, 김영희, 김할란, 박성현, 양기화, 유미화, 유명화, 이옥년, 이충영, 임윤선, 주순영, 이춘만 **Arizona** 김명미, 김숙희, 김희순, 서덕자 **New Mexico** 문성기, 전마옥, 차진주, 한광윤 **North Carolina** 송세진(Ph.D), 유영걸, 최은순 Washington D.C. 이용호, 이윤희, 옥경호, 서은정 **Los Angeles** 김영구(목사), 김순희, 김원주, 김은순 **Seattle** 안선균, 이영윤 **Missouri** 손인석 **Connecticut** 강병목, 오상태 **Hawaii** 김성자, 지도현, 양상훈 **Chicago** 이경복 **Minnesota** 황상섭 **Philadelphia** 김정도(목사), 이영근, 신만식 **Phoenix** 박태영 **Silicon Valley** 신민호, 이상원, 이종원 **Tacoma** 김재필, 이명운, 장석태, 최태규, 코리아 **Spokane** 신원택, 신원식, 하동해 **Kansas City, Missouri** 김성배, 정영로, 최병연, 허장(목사)